

# 이단의 특징과 이단전도전략

전 호 진\*

## 서 론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단이다. 이 이단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항상 기독교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어왔다. 기독교가 강한 서구나 기독교가 심히 약한 선교지에도 이단이 날로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단 신자는 6천만을 상회한다. 특히 이단은 기성세대 보다는 대학가와 청년층에 교묘하게 침투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산의 대부분의 대학가에는 기독교, 불교등의 온갖 신흥종교의 학생씨클들이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하며 통일교는 대학가에 가장 막강한 학생운동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운동권 학생운동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우익학생집단"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나 심지어 사회가 비교적 안정된 서구 국가에도 동일하다. 통일교는 공산주의 국가에도 침투하거나 서독의 학생, 청년층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어 이단을 독일어로 청년종교(Jugend religion)라 부를 정도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현 사회는 세속화와 자유가 많은 다양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역시 취사선택의 여지가 많아 이단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단현상이 어느 사회든지 보편화 되었다고 진단한다.

근대화는 선택을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숙명으로 경험했던 것들의 영역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종교에 있어서는 다른 인간생활과 사상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선택해야 하는 필연성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현대적 상황의 이단적 명령이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단은 한때 소외된 사람이나 괴팍한 사람들이 하던 짓이지만 이제는 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이단은 보편화 되어 버린 것이다. (버거 1981 : 39)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단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고 예언하였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하리라" (마24 : 10, 11)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부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단의 위협과 위협에 무관심하여 교회에서는 신앙고백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하며 신학교에서도 무신론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유신론을 변호하는 변증학은 크게 인기는 없지만 강좌로 개설되는데 이

\*교수, 선교학 전공

단에 대한 강좌는 강의실에서는 제외되어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실정이다. 여기서 아시아의 몇 이단등을 살피고 이단의 특징과 전도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 1. 아시아에서 이단의 도전

아시아에서 기독교 선교는 그 발판을 확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사실상, 아시아 기독교 교회들은 많은 아시아의 종교들에 둘러 싸여 있어서 여전히 소수세력인데도 이단 집단들은 교회에 비해 많은 신자들을 확보했다. 게다가 한국에는 많은 이단집단들이 있다. 한 종교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는 약 39개의 이단 집단에 270만의 신자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구 선교사들 중 삼분의 일 이상은 물론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자녀들 등과 같은 서구 이단 집단들로서 이들은 멋진 용모와 학식과 유창한 한국어로 청년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아마 전세계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그들의 호별 방문전도는 대개 기독교 가정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은 교회도 성장을 잘하고 있지만 또한 이단도 성장한다. 지금 한국에는 자칭 예수가 약 25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해방이후에는 특히 혼합적이고 토착적인 신흥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였다. 이들 새롭게 나타난 종교들 중에 통일교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단이다.

통일교의 해롭고 위험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한 조직, 거대한 경제력, 정부 후원 활동, 국민들에게 반공신주의를 호소하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와 사회에서는 그들을 쉽게 거절하거나 억압 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 안보와 반공과 관련하여 공식 성명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통일교 운동은 국가생존의 운동이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의 실재를 부인하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실재를 믿는 기독교에 의해 타파되어야 한다. 교주 문선명의 가르침으로 파생된 원리들은 하나님의 실재에 관한 진리를 증명하고 마스와 레닌에서 시작된 유물론의 거짓을 증명한다. 고귀한 통일사상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승리하기 위한 진리와 세계 만민의 신뢰를 제공한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투쟁하도록 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내에서도 국방과 국가생존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운동이다. 대외적으로는 전세계를 구하는 운동이고 혼란한 세계에 희망을 주는 운동이다. (Kang 1976 : 23)

통일교의 강도있는 반공신주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교주 문선명은 최근 소련을 방문해서 고르바초프를 만났고 전도의 목적으로 중국에서는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다. 통일교는 그들

의 선교사들을 60개국이 넘는 세계곳곳에 파견하여 거의 세계적인 신흥종교가 되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은 특히 대학 캠퍼스에 두고 있지만 시골 교회들과 가난한 도시교회들을 대상으로 “양 훔치기(sheep stealing)”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가, 정치, 경제, 예술 분야에 대한 그들의 교활한 침투를 언급하기에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다. 통일교는 비록 그들의 교회가 많지 않지만 한국을 파멸할 수 있는 거대한 왕국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단들의 도전은 아시아의 타국가들 보다 더 심각하다.

여기서 우리는 아시아의 일부 토착화된 이단들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두번째 주요한 이단은 필리핀에 있는 Iglesia ni Cristo(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것은 제 3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력하고 독자적이며 토착화된 교회들 중 하나이다. 이 교회는 1914년 Felix Manalo Ysugan의해 시작되었는데 필리핀에서는 네번째 되는 큰 교회가 되었다. 비록 그 역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비교해 볼 때 짧을지라도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과 국어 강조는 국민들 특히 자의식이 강한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 같다. 필리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교회건물은 심지어 외국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이다. 이 교회의 전문가인 Tuggy는 이 교회를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문화에 적응시킬 필요가 없다. 이는 그것이 그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토착교회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의 현상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점을 말할때에 다음 사항도 지적해야만 한다. 일부 사람들이 말한 것 처럼 민족주의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되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이 이단 교회의 문제점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매력일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 교리가 되고 있다(Tuggy 1978 : 101).

필리핀의 이단인 그리스도 교회는 6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2,500교회에 50만 이상의 신자를 확보하여 4대 대교단중에 들어갈 정도이다. 몇년전 로마천주교 교황이 필리핀을 방문하였을때 4개 대교회지도자들을 면담하였는데 그중에 이 교회가 포함되었다. 이 교회는 철저히 반로마카도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개신교에도 적대적이다. 이들의 교리는 물론 역사적 기독교를 계승하며 성경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지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교회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나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교회라고 함으로 배타적 성격을 띠며 이단 특유의 창설자를 우상화하는데 예외는 아니다. 예를들면 창설자 Felix Manalo는 그의 독특한 사역과 동방에서 태어난것, 또 그의 출생시기등을 비추어볼때 그는 계7 : 2, 3의 천사라고 주장한다(Tuggy 1976 : 105-140). 이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강력한 전도활동, 평신도의 동원, 하층민대상의 전도, 전통문화에 대한 호소, 민족주의적 색채 이외에 창설자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이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기독교에 반대하는 정부들 때문에 기독교 선교에 많은 제한과 제지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들도 복음전도의 자유가 없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단들이 불법으로 전도활동을 하였으나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는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단의 위험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또한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이단이 심각한 도전이 되는 나라가 있다. 예를들면, 일본과 타이완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소수이고 타이완에 있는 “신약교회”(New Testament Church)는 한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주 홍 목사에게 의해 1979년에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타이완과 심지어 중국의 산둥지역과 남동부지역에 퍼지고 있다. 이들은 극단적이고 공격적이며 급진주의적이어서 자기들만이 참 교회라고 자부한다. 또한 윗치만 니(Watchman Nee)교회들도 타이완과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 교회는 비록 이단으로 분류할 수 없더라도 중국 정부는 이 “시끄러운” 집단을 의심하고 있다. 윗치만 니 교회는 타이완에 3-4천명의 신도에 약 100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통일교 역시 타이완 교회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에는 물론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등 미국의 이단과 통일교가 비교적 강하고 순수한 일본의 토착화된 이단은 없고 다만 성결교의 4중주복음을 기초로 한 手島郁郎의 원시복음이 있다. 이 신흥종교의 창설자 手島郁郎는 사생활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특유의 신유은사로 사람들을 모았으나 교리는 물론 탈기독교적이다. 원시복음은 일본의 토착적 이단은 아니지만 죽은자와의 대화나 이적관등은 동양적인 특징이 있으며 그 외 일반교리는 서구의 이단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원시복음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정한다. 창설자 手島郁郎는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천막(新萬屋)을 부르짖으면서 신약교회에 복귀를 역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적 특색이다(參山 兪 : 1965 : 47-50).

일본에는 토착적인 기독교 이단은 원시복음 이외에 별로 없고 오히려 불교계통의 신흥종교가 2차대전후 종교법의 완화로 우후죽순 처럼 등장하여 70년대는 신의 러시아워를 이루었다. 불교계통의 대표적인 신흥종교는 創價學會 立正佼成會 靈友會로서, 이들은 그들의 교리와 의식들은 현대사회에 조화시킬려고 시도하며 대중들의 필요욕구(felt needs)에 호소한다. 이 중에서 창가학회는 가장 성공한 신흥종교로서, 이 집단은 일본의 정계에도 침투하여 수십명의 국회의원과 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이집단이 급성장하여 일본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시대에 대한 적응력, 뛰어난 지도력, 알맞은 교리, 그리고 연구된 전도전략이 결합된 결과이다. 일본의 사회학자들은 창가학회가 성공한 이유는 불교와 기독교

의 전통적인 종교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이들 신흥종교는 걱정,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소위 무산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있다고 분석한다. 즉 이 신흥종교는 대중들의 필요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Morika 1975 : 164-65).

## 2. 이단의 정의와 특징

요즈음 교회들은 그들이 믿고 신봉하는 신앙고백과 교리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셨다. 선교지역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단과의 구별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이단들과 많이 관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의 위험을 그들에게 말해야하며 참된 신앙을 믿도록 해야한다. 이단에 관한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일부 사람들은 이단을 분파(sect)와 동일시하고 사회학자들은 이단을 전통적인 합의와는 관계 없고 매우 다른 세계관과 도덕관을 가진 소집단으로서 정의하려고 한다. 웹스터의 사전에는 이단을 “비정통적이거나 가짜로 생각되는 종교이며 혹은 비전통적이거나 가짜 신앙을 신봉하는 소수 종교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학적인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 관심은 내재된 진리와 오류에 있다. 따라서 이단에 관한 신학적 정의는 기독교의 정통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사이어는 이단을 “조직적인 특징과 카톨릭과 개신교 종파로서 대표되는 전통적 기독교에 의해 번역되고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표현되는 성경에서의 그것과는 모순되는 교리와 의식을 갖춘 일종의 종교운동”(Enroth 1983 : 15)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든 루이스는 이단을 “그리스도와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1) 성경에 없는 계시록과 2) 신앙의 기본 교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대체시킴으로서 기독교의 중심된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일종의 종교운동”이라고 정의한다. (Lewis 1966 : 4)

루스A, 터커 박사에 의하면, 이단은 성경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를 가진 종교집단으로 흔히 그들은 현실적으로 계시적이며, 영감된 저작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Tucker 1989 : 16) 루스 A, 터커의 이단에 관한 정의는 창시자의 특별한 계시와 소명을 많이 강조한다.

이단들의 특징을 설명하기란 용이하고 단순한 일이 아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단을 권위주의적, 위선적, 배타적이며 구세적이라 여긴다. 한편, 신학자들은 이단들을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단들은 종종 교회내에서 나타나며 교회안에서 그들의 신봉자들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통적 신앙고백과 의식에서 크게 이탈해 있다. 이단들은 주로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는 카리스마적 인물들에 의해 시작된다. 어밍 핵심과 칼라 포위는 이단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분석적으로 말하자면, 이단화의 과정은 네가지의 주된 국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이단이나 신흥종교는 지도자와 몇 사람의 측근이 세계관을 객관화하고 구체화 시키는데서 출발한다. 그들은 신앙을 대중화하고 추종자들을 모으며 조직체를 구성한다. 둘째, 그들의 환경속에서 개인적 위기나 심각한 불안들을 경험한 개개인들이 그러한 불안들을 해소하고 세상적 죄악들로부터 자신과 세상을 구원할 세계관과 사회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셋째 추구하는 개개인은 신흥종교를 찾고 그 집단에 적응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사회와 가까운 이웃들(부모, 친구, 공동체)은 그들의 신앙과 새 종교에 대한 호감이나 적대감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이단화의 과정은 종교적 기업가, 영적 치료자, 구도자 등의 복합적인 혁신을 포함한다. (Hexham 1986 : 96)

이단들의 특성을 고찰해보면서, 우리는 미국의 이단과 아시아의 이단들 사이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새 세대(New Age Movement) 등과 같은 미대륙의 이단들은 주로 기독교 교리에서 이탈되어 있다. 앤소니 호크마는 미대륙의 이단들은 권위에 관한 비성경적 기원, "오직 은혜"의 교리를 부인, 그리스도의 평가절하, 구원 받은 자들만의 독점적 공동체로서의 집단, 종말론에서 집단의 역할 등 다섯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다. (Hoekema 1988 : 375-6)

그러나 아시아 이단들은 기독교와 아시아 문화와 종교들에 기초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혼합 종교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교와 이글레시아 니 그리스도는 그러한 혼합 종교의 대표이다. 여기서 이단들의 특성에 관한 엔로드 박사의 분석을 다시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1) 권위주의적—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주장하고 절대 왕권과 충성을 명령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카리스마적 인물이 있다.
- 2) 적 대 적—그들의 신앙과 의식, 가치관은 기존문화와 배치된다.
- 3) 배 타 적—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진리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부심이 대단하다. 따라서 그 집단을 이탈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이 위태롭게 된다고 생각한다.
- 4) 형식주의적—그들은 창시자가 제정한 엄격한 규칙과 규율들을 지키도록 강요 받는다.
- 5) 주 관 적—이단들은 경험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반 지성주의를 조장하고 합리적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과 교육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 6) 핍박에 대한 의식—핍박 받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

- 7) 처벌지향적—이단들은 배신을 견디지 못한다. 반항적인 사람은 감정적 공개 참회, 수치, 심지어는 육체적 폭력을 당하기 일쑤이다.
- 8) 밀 교 적—이단은 비밀과 은폐의 종교다.
- 9) 반 성직제도주의적—이단들은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되기 쉽다. 정통 교회(E. roth 1983 : 17-22)와 같이 성직자나 직업적 종교 사역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의 9가지 특성들에 첨가해서, 이단 집단들은 종종 성과 돈에 관한 추문들을 빈번히 일으키는 등 부도덕한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진보주의적 종교 집단들이 투쟁하는 인권과 사회정의, 민주화의 문제에는 무관심함으로서, 그들 사회내에서 기득권력에 순응토록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탄적인 이단 종파들이 사탄적인 정치 권력에 순응할 것임을 예언한바 있다. 또 우리는 마귀의 세력 혹은 몇몇 이단 집단들의 초자연적 행위들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집단은 교리나 윤리적 가르침보다 병고침, 방언, 황홀경의 체험, 초월적 행위등의 종교적 현상들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13 : 11-14)

### 3. 이단의 성장요인

이단의 성장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 성장요인은 사회, 정치, 경제 및 기존 종교의 요인외에도 이단 자체에 성장요인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외적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이단이 성장하는 이유로 먼저 사회적 요인을 지적해야 한다. 과거 혈연중심과 지연중심의 농경사회는 기존 종교가 그 지역의 문화와 풍속과 의식을 지배해 왔다. 우리나라는 농촌문화가 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본은 불교와 농촌문화가 밀착되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는 이를 전통적 종교에 의한 가치관에서 해방되는 구실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종교의 진공상태가 발생한다. 사람은 본래 종교적이기 때문에 세속화로 인하여 반드시 무종교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종교를 추구한다. 일본, 필리핀, 한국에서

이단이 성행되는 요인은 이러한 사회 변동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동경대학 사회학 교수 모리키는 일본에서 創價學會 立正橋成會 靈友會같은 신흥종교가 2차대전후 급성장한 원인을 도시화의 영향으로 돌렸다.

1951년 평화조약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증가는 일본인의 종교생활 형태를 변화시켰다. 도시에서 신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 세대동안 신사 가까이에서 살아가며 신사의 연례행사에 참여하였던 노인세대만이다. 시골을 떠난 도시이주자들은 신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 도시의 중들은 참배자들에게 헌금만 요구할 뿐이다. 적극적인 개종의 경험이 없어서 도시인들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와 교회는 종교적 사막이 되었다. 전후의 신흥종교가 개종자를 성공하는 곳은 바로 이 진공의 도시이다. (Morikisa : 1975 : 9)

통일교등 이단들이 한국에서 성장하는 요인도 한국사회의 불완전한 정치와 사회에 기인한다.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정치적으로 늘 불안정하였고 공산당의 위협으로 안보와 정치가 사회의 주 관심사가 되었다. 여기에 통일교는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일부 정치가들과 백성들에게 어필하였고 많은 기업과 상업조직으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유혹하였으며 한국이 교주의 나라로, 세계평화가 통일교를 통하여 한국에서 실현된다는 종교적 민족주의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이상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헬 그레이브 역시 모리키와 같이 이단 성장의 사회적 요인을 지적한다.

통일교의 성장은 부분적으로는 불안정한 사회와 정치적 여건에 있으며 또한 한국동란 이후 남한의 국민생활을 위협한 공산주의의 위협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시온주의 운동이나 김반구 이단이 성장한 것도 역시 식민지 시대와 그 이후의 아프리카의 사회 상황에 기인한다. 새 사도교회(주: 영국의 한 이단 기독교: 필리주)는 서구 기독교시대에 침투한 배교를 계속 지적하였고 여호와의 증인 역시 서양기독교를 바빌론으로 단정하였다. 브라질의 움반다 이단도 고향을 떠나 뿌리를 상실한 사람들이 새 가치관과 인간관계를 회구하는 브라질의 도시 중심지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Hesselgrave 1978 : 303)

이단성장의 둘째 요인은 각 이단들이 자기들의 전통적 문화에 대한 강한 자의식과 긍정적 평가 때문이다. 불교나 힌두교등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는 이미 동양문화를 바탕으로 신비적 요소와 더불어 전통 문화적 요소를 뿌리로 하지만 반면 기독교는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배제하여 토착화에 관심이 거의 없다. 아시아에서 등장한 토착적인 기독교 이단은 기독교를 서구 종교로 배격하고 전통적 문화요소와 기독교를 혼합하여 토착화 하여 문화를 보존하려는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통일교, 그리스도의 교회(필리핀), 원시복음(일본)등은 이러한

토착화의 실례이다.

세째로 이단성장은 사회의 기존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세대가 이단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원인이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서는 1960년대에 반문화운동 혹은 청년문화가 전성기 일때 이단이 성장하였다. 특히 서구에서는 중류계층이상의 청년들이 통일교와 하레 크리스슈나 같은 동양의 이단을 믿는 것은 서구의 풍요로 오히려 물질주의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며 비인간화와 소외감 및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고 새질서와 카리스마적인 종교지도자를 동경하고 또한 합리주의를 배격하고 경험위주의 신비주의를 더 선호하는데 원인이 있다. (Hexham 1986 : 114-5) 독일의 이단성장에 대하여 피펠만교수도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다. 독일의 산업화, 환경오염, 장애에 대한 불안, 권위의 위기, 유토피아와 강력한 지도자(Uberman)에 동경심이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Loffelman 1979 : 9-11)

네째로 교회 자체의 내적요인이다.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신흥종교는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의 대 교단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여 남긴 영적공백을 이단들이 채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회의 경우, 교회의 분열, 일부 교회의 영적쇠퇴, 축복과 신유등 종교현상에 치우친 나머지 교리 교육의 소홀, 청년에 대한 무관심, 복음의 상황적 접근결여, 신자관리의 소홀로 기존 신자들을 이단에 빼앗긴다. 반면 이단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많은 요소가 있다. 문화적 적응, 권위있어 보이는 독특한 메시지, 강력한 조직책, 소속감,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계시의 균형, 적극적인 전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대중매체의 활용 등이다.

#### 4. 이단전도전략

이단자들에 대한 선교전략에 관한한 복음주의자들과 진보적교회는 이를 소홀히 해 왔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단 신봉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WCC는 “교리는 분열시키고, 사랑은 하나로 되게 한다”라는 구호로 교회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무관심하도록 만든다. 로잔 회의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the unreached people)을 대상으로 선교전략에 강조점을 두었으나 이단자들은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금지된 백성”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 단체들은 이단자들에 대한 선교 전략이나 복음 전파는 전혀 계획하거나 개발하지도 않았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요일10)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신자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이단자들을 초대하기는 커녕 그들의 면전에서 대문을 걸어 잠그도록 가르치고 있다.

1) 개혁과 변증

이단의 성장은 교회의 실패로 빚어진 직접적 결과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화란의 신학자 반 발렌 박사는 '이단들의 혼돈' 이라는 저서에서 "우리는 이단들에게서 무엇을 믿지 않아야 될지를 깨달아야 하며 또한 이단은 교회의 지불되지 않은 어음 증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Baalen 1956 : 14)고 하였다.

로잔 특별 문서는 교회를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경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양심을 쉬게 할 수 없다.

사탄은 인간을 오도하기 위하여 심리, 사회, 교육 등 모든 방법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성령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소명에 따라 신자답게 사는 자가 지극히 적다. 우리는 신앙심이 결여된 교회와 기독교 가정 이 저지른 비극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Thailand Report No. 11 : 21).

독일의 튀빙겐에서 열렸던 이단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통일교, 하나님의 자녀들, 하리 크 리쉬나 같은 현대의 신흥 이단 종파들의 성공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또한 교회의 잘못에 대한 몇가지 지적들이 있었다. 교회는 전통과 계도이즘에 빠져 접근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한다.

신앙은 무미전조한 도덕률로 전락하였고 교회의 가르침은 지루하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나님 경외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와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또 성경의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교리주의와 율대로 되라는 식의 방임주의로 방황한다. 이러한 방향성 부재가 청년들을 무장된 '구루(선생)'들에게 돌아서게 한다. 교회가 정의와 압제, 빈곤의 문제에 무감각해진 것 같다(상계서 : 21)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개종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교회들이 개혁되어야 함을 요청 받는다. 교회의 갱신과 개혁은 교인들이 이단으로 개종하는 것을 막는 가능한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현존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이단으로 개종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자들은 이단자들을 개종시키도록 하기전에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한다" (Lewis 1966 : 9). 교회는 갱신과 개혁이 요구 된다. 그러나 교회는 참 신앙을 고수하는 신앙의 변증에도 힘써야 한다. 교회들은 신앙의 변증을 희생시키거나 무시한 채 선교에만 열정을 쏟은 경향이 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리나 신앙고백을 가르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교인들은 복음을 세속화 시키고 목회자의 교육 목회를 강조하지 않는다. 심

지어 신학대학과 신학교에서는 이단에 관한 커리큘럼조차 없고, 변증론은 이단들이나 아시아 종교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구에서나 강한 성경 비판주의와 무신론을 대상으로 한다. 교회는 이단자들이 교인들을 넘어 뜨려 이단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모든 교인들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빌1 : 16)" 받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3 : 15)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과 4장에서도 정통교리를 변론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2) 영적 전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에 임하여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항상 스스로 개혁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개혁 노력이 반드시 이단들의 완전 소멸을 보장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부터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다. "사탄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현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마치 적의 면전에서 무장도 하지 않은 병사들과 같다. 이단에 대한 복음 전파는 사탄과의 전투이다. 다른 종교들이나 이단을 비판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일부 억설이 있음은 불행한 노릇이다. 월터 마틴은 다음과 같이 이단에 대한 올바른 논쟁의 긍정적 측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논쟁 그 자체가 사상에 항상 자극제 역할을 해왔고 많은 경우 필요한 개혁들을 자극시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분명한 사실은 다른 종교적 신앙을 비판하는 일이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 개인적인 적대감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Martin 1977 : 377)

기독교인의 삶에는 분별력과 영적 전쟁이 요구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일4 : 1) "종말로 너희가 주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엡 6 : 10-11) 한국 교회 교인들은 통일교나 박태선 일파등과 같이 널리 알려진 이단들에 대한 무장은 이미 잘 되어 있다. 그러나 Witness Nee의 "지방 교회"운동(윗치만 니와 관련이 깊음)과 권 목사의 "구원파"와 같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몇몇 매우 의심스러운 집단들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들을 식별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우기 많은 이단자들이 현대 사회와 정통교회들에 적응하기 위한 교리적, 실질적, 변신을 피하고, 사회 개혁운동등에도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스러운 것은 여기에 미국

의 몇몇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들과 손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사상은 강하게, 방법은 부드럽게”(fortiter in res, sua iter in modo)가 필요하다. 특히 합리적인 면보다 감정적인 면이 더 강한 아시아 문화는 교회도 기독교의 원리나 내용보다는 방언, 신유 환상등 종교현상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신유, 축귀, 방언은 성령에 의한 것도 있으나 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다. 이리므로 아시아 교회는 악령과 싸우는 영적대결(power encounter)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교회는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요구된다.

### 3) 복음전파

이단전도는 악령과 싸워 이기는 영적 대결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이단자들을 위하여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단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 “또 어떤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자를 그 육체를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 하여 두려움으로 궁핍히 여기라”(요23) 우리는 이단 종파들을 중요해야한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자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단들에 대한 복음전파는 겸손과 지혜, 그리고 실제적인 성경지식이 요구된다. 단순한 논쟁으로는 이단에 대한 복음전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다. 그들의 욕구가 만족되고 소속감이 충족되었을때 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더욱 열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신실한 신앙을 소유한 이들로 대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 죄 많고 불순종한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단자들은 종종 공격적이지만 또한 대단히 의심을 많이 하고 두려워한다. 이단자들에 대한 복음전파는 단순하지만 용이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관심이 많은 자들일 뿐 아니라 광신적인 면에서 매우 종교적이며,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메시지를 그들이 신봉하고 지키는 교리와 의식 보다도 더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단자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몇가지 실용적인 제안들이 요청된다. 첫째, 왜 그들이 이단에 가입했는지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들은 이단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이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기성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 차려야한다. 둘째, 우리가 접근하려는 이단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하다. 그들은 이니 기독교 기본교리를 숙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우리들이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탁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한 무엇을 전하느냐는 문제

만큼 중요하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는 불가피하게 논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혜가 담긴 복음전파만이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단자에 대한 전도는 자칫 논쟁과 싸움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내와 결손이 요망되며 최후의 설득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존해야 한다.

### Conclusion

대부분 선교사역지에서 이단들이 교회에 대한 위협이 될뿐 아니라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전세계에 걸쳐 약 5천 7백만명의 이단 신도들이 있다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은 이미 기독교와 이데올로기, 다른 종교들, 그리고 이단들이 영적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단이 사람들에게 안정감, 사랑, 교제 그리고 인생살이의 어려운 질문들에 현명하게 해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때 이단들이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많이 끌어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아직도 교회는 전통과 게토이즘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교회는 개혁과 갱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을 얻는가만을 헤아리고 있을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잃고 있는지는 셈하지 않고 있다. 이단자들에 대한 선교사역에는 현존(Presence), 선포(proclamation), 설득(persuasion)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은 1990년 8월 27일-31일 충청교회에서 개최된 아시아 선교대회에서 발표한 “Mission strategy among the cults”를 번역, 보완한 것임

## BIBLIOGRAPHY

- ANTONY, Hoekema A.  
1988 *The Four Major Cults*,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 Baalen, Jan Karel  
1956 *The Chaos of Cults*, Grand Rapids : Eerdmans
- ENROTH, Romald & Others  
1983 *A Guide to Cults and New Religions*,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 HESELGRAVE, David J. edit.  
1978 *Dynamic Religious Movements*,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
- Hexham, Irving and Poewe, Karla  
1986 *Understanding Cults and New Religions*, Grand Rapids : Eerdands Pub.
- KANG, Wi Jo  
1976 "The Unification Church, Christian Church or Political Movement?" *Japanese Religions* Vo 1.9, No.2(July 1976)
- LEWIS, Gordon R.  
1975 *Religion in Changing Japanese Society*, Tokyo : University of Tokyo Press
- Loffelman, Hans  
1966 "Neue Sekten : Problem und Aufgade fur den Jugendschutz," *Neue Juggendreligion*, Manfred Muller, edit. Gottingen : Ver. Mediizine Psychologie.
- MARTIN, Walter R.  
1977 *The Kingdom of Cults*, Minneapolis : Bethany Fellowshioip Inc.
- RUTH, Tucker A.  
1989 *Another Gospel*, Grand Rapdis : Wm. B. Eerdmans Pub.
- THAILAND REPORT No. 11  
1980 *Christian Witness to New Religious Movemenbts*
- Tuggy, A. Leonard  
1974 *Igielesia Ni Christo : A Study in Independent Dynamics*, Quezon City : Conserative Baptist Pub.
- TUGGY, A. Leonard  
1978 "Iglesia Ni Christo, " *Dynamic Religious Mavements*, Hesselgrave, edit.
- TUCKER, Ruth A.  
1990 "In Search of Respectability," *Christianity Today*, 1990 Feb. 5
- 버그, 피터. 서광선역  
1981 이단의 시대,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森山諭  
1965 原始福音, 新座 : 新生運動